† 마태복스는 제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원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태복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둡니다.

◉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흐르는 것은

신윤식

흐르는 것은
나에게서, 너에게서
떠나가는 것
흔적지우며 사라지는 것

숲에 머물던 바람도
털고 일어나
다른 숲으로
또 불리어가는 것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남길 것도 없는데
머무는 그 곳만 생각하는
한없는 어리석음

흐르는 것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라도
사뭇사뭇 걸어서
이별이 된다.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발 행 인 신윤식 목사
발 행 일 2012.12.30
발행호수 제20권 52호

주일오전설교
눅 9:7-9

다양한 소문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이 나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에 드러난 일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각기 자기 해석을 따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엘리야가 내려 온 것이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20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수준일 공산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생생히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로 인해서 당황해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당황해 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한 소문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헤롯은 갈릴리와 베뢰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이란 로마 황제가 일정 지역을 나누어 주어 다스리게 한 영주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는 죽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각기 통치권을 맡겼는데 유다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에게, 갈릴리와 베뢰아는 안디바에게, 북동부 팔레스타인은 빌립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과 또 다른 악한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지적 하고 책망하자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은 헤롯의 의사라기보다는 헤로디아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은 헤롯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달라고 하고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을 죽인 일이 헤롯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고 또 그를 보호하고자 했는데 자신의 말실수로 인해 죽이게 되었으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소문 중에 하나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불안감을 벗어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의도와 목적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짜 맞춰진 채 해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양하게 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각기 자기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도와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 따른 의도와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을 섬긴다고 해도 의도와 목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경우를 보면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도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신의 능력에 마음이 끌리고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그러한 능력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실천적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뛰어난 능력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요한이 사람들의 눈에는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비췄을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겼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에서 도덕적인 거룩과 의로움을 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병을 고친 능력보다는 도덕적인 삶의 모습에 초점을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였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신 일은 하늘로 간 엘리야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능력에 관심을 두고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몸이 병든 사람일 수도, 병들었다가 고침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협박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선지자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여러 소문들 중에서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으로 확인하고자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소문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상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 등장했던 여러 성인들 중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도덕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평가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을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을 중심으로 한 자기 시각과 기준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믿음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떠들 것입니다. 능력으로 인한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고도 여길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고 성경공부를 즐긴다고 해서 바른 믿음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체험하는 것 또한 믿음의 본질이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오직 생명을 향해 있음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뜻이 생명에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자기 구원에 집착함으로 인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생명에 있다는 것은 신자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의도와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헤롯으로 하여금 요한을 죽인 자기 행위를 생각하게 했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요한을 죽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잘못된 자기 행위를 다시 묻고자 하는 취지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헤롯과 같은 취지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어 들이고 심적인 안도감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라면 그 또한 자신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찾고 말씀을 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행동에 대한 감각을 둔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행동을 덮을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싸고 있음을 깨달으며 비로소 십자가로 인한 평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반응입니다.

주일오후설교
시 96:1-13

심판의 하나님

(100강 12.9일 설교)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계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우리의 개념과 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감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있었고, 2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또한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세상이 내세우고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안에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내용이 없이 위대하시다,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형식일 뿐이고 따라서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말은 기존의 노래와는 단절된 다른 노래를 뜻합니다. 즉 기존에 행했던 이스라엘의 찬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존의 이스라엘의 찬양 방식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새롭게 수정하라는 의미로 '새 노래로 노래하라' 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저자가 '새 노래'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기존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어떤 형식이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인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자는 여호와의 성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소로부터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이 나타나고 능력과 아름다움도 성소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에게 여호와의 성소는 영호와의 영광 자체였고 아주 특별한 곳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 자체를 절대적인 장소로 여겼습니다. 성전에 성소가 존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전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으로 절대적이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저자가 말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를 정결한 제물의 대신 죽음과 그 피를 보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라는 기이한 행적이 흘러나오는 그곳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거룩하고 절대적인 곳으로 여기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형식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기존의 찬양은 찬양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신자가 필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심판' 입니다.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 심판은 묵과 한 채 구원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입에 단 것만을 삼키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땅의 심판을 자각하면서 하늘의 의를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심판이라는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의로 오신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의 방식을 기이한 행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자와 자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찬양이며 새 노래입니다.

현대 교회도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여러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에 힘을 씁니다. 찬양을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감정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것이 찬양의 은혜라면 아무런 악기도 없이 곡조나 박자도 맞지 않는 시골 교회 노인들의 찬양은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찬양의 중요성은 분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에 있는 것도 아니며 가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가사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일치된 훌륭한 가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담고 있는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끼리 노래하면서 자신의 기분을 푸는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부름 받고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라는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기적 자체가 기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사백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일이 기이하고, 열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기적에 대한 체험이나 세상 것이 주어진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신분으로 죄 아래 있고, 심판에 속한 자로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 구원이야 말로 신자인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이한 행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알고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마땅한 존재였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이한 행적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렘 23:9-15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58강 12.5일 설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또 다른 선지자를 책망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당시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을 사악하다 하시고 13절에서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우매함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해서까지 가차 없이 죄를 고하고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세워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는 바르고 다른 선지자는 모두 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참되고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취향을 따라 말씀을 왜곡하여 전했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를 비교하지 않고 그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를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르게 여겨지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참되고 악한 선지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거짓 선지자의 악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로서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군가보다 낫게 여겨지면 그를 가르치고 책망할 자격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연중에 서로를 비교하면서 신앙의 수준에 차별을 두고, 그로 인해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려 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분입니다. 따라서 악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규정되어집니다. 즉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여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규정되어 진다면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 예레미야도 악한 죄인이라는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과연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고통을 겪었을 때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따라서 예레미야도 당연히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수많은 위협과 배척이 있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예레미야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와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누가 책망합니까? 예레미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만 말씀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책망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교회에 굳어져 있는 고질적인 사고방식은 목사는 교인들을 책망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는 일반 신자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수준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자를 가르칠 수 있고, 신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목사도 일반 신자도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히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지금의 목사 역시 선지자를 향한 본문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책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죄를 드러내고 악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고, 지금의 목사 역시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세워졌을 뿐입니다. 즉 목사 역시 말씀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것을 안다면 먼저 자신부터 말씀에 의해 책망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책망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신자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로서의 자기 본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든 신자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말씀에 의해 책망을 받은 자로 지체를 대한다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일은 삼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면 누군가의 책망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네가 뭔데' 라는 반응을 보이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책망으로 다가온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세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책망하시면서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에 초점을 둘 때 사람에 대한 반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1(46)장
교　　독 : 70(사42장)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86(474)장
성　　경 : 눅 9:7-9
말　　씀 : 다양한 소문(4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95(8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529(319)장
기　　도 : 장동현 집사
찬　　송 : 246(221)장
성　　경 : 시 99:1-9
말　　씀 : 하나님의 거룩(10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8(9)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62강)

▣ 교회소식 ▣

1. 다음 주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 다음 주부터는 개정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유오자 집사

이단 ⑪

그러면 이제 기독교 초기에 발생했던 이단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 시대에 발생하는 이단의 대부분은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이단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에 어떤 이단이 발생했는가를 안다면 이단의 특징과 공통점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행 15: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분파에 속한 사람들로 여전히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믿었다. 그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으며 유대교가 의의 행위로 믿었던 율법적 행위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자 자신들의 주장을 가르쳐 이방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에게 끌어 들이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안디옥으로 온 듯하다.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의 개종자가 있었는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 15:5)**고 말하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을 편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게 된다.

변론을 통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내린 결론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론으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유대파 극단주의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에비온파' 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부류였다.

에비온파의 특징은 유대주의와 기독교 요소들을 자신들의 사상에 혼합시킨 것이다. 또한 친유대주의 경향으로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대주의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마태복음만 사용하기도 하였고, 바울은 배도자로 취급하여 바울서신은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모세 율법을 고수했고 엄격한 금욕주의적 특징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에세네파와도 비슷했다. 또한 이들은 유일신 사상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에도 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꺼려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만의 기독론인 양자론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양자론이라는 그들의 기독론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탄생한 일반인과 동일한 인간으로 보는 것으로 출발한다. 다만 지혜와 다른 면에서 다른 평범한 인간보다는 탁월하였으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각했으며 하나님의 양자로 택정되었다고 주장 한다.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에비온파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하나님의 구속의 틀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연속성을 강조함으로 발생한 초기 기독교의 첫 이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